

광주시, '월드IT쇼 2026'서 투자유치 총력전

경자청·도시공사·AICA·연구개발특구·기업과 '공동관' 운영 생활밀착 기술 전시·시연, 맞춤 상담 통해 국내외 협력 모색

광주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6'에 참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지자체·기업 전시관 운영과 함께 글로벌 AI 전망 콘퍼런스,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도시공사, 인공지능융합사업단(AICA),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 혁신기업 등과 함께 '광주공동관'을 조성해 핵심 전략산업과 투자환경을 집중 소개한다. 광주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과 첨단3지구 산업단지, 빛그린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거점을 비롯해 입지 여건과 세제 혜택,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광주에 본사와 연구 거점을 둔 혁신기업 3개사가 생활밀착형 AI 기술

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디지털 멘탈 솔루션 기업 '이노디테크'는 AI 기반 치아교정 진단과 치료 계획 기술을, '무한정보기술'은 AI·드론·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리얼디자인테크'는 노화 예방을 위한 인지·균형 통합 트레이닝 기반 AI 헬스케어 기술을 전시·시연한다.

시는 행사 기간 투자유치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캐나다 온타리오 무역사절단과의 기업 간(B2B) 미팅도 주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확장현실(XR), 사이버보안 등 첨단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유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한다.

이와 함께 첨단3지구 산업단지 분양·입주 상담을 병행해 관심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인공지능 포토부스와 퀴즈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광주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6'에 참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본격 나선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을 운영해 관람객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다국어 홍보물과 도시 홍보 영상을 통해 광주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알리는 한편, 광주·전남 통합 비전도 함께 제시한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산업

기반과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알리고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융복합단지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반을 부각해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선석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광주의 AI·미래 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현장 상담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순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월드IT쇼를 계기로 광주의 AI 산업 역량과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널리 알리고,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소비재 유망중기 수출 저변 확대...동남아 공략 '성과'

광주시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60건, 1043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1건, 177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967년 결성된 10개국 협의체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대체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며 상담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일정에는 알제이벤트스(주), ㈜파이프코리아, 퓨어벨, ㈜유창종합식품, 티비앤, ㈜유니통신, 썬 글로벌 인터내셔널, 뽀에다, ㈜라피네제이 등 종합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는 화장품 제조기업 알제이



광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60건, 1043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1건, 177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개척단 파견...1043만달러 수출상담 광주 기업 9곳 참여...물류비·무역보험료 지원 등 후속관리

벤처스(주)가 51만달러, 신선농산물 유통기업 ㈜유니통신이 3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화장품 기업 ㈜라피네제이는 자카르타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50만달러와 2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리며 이번 일정 중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간식 제조업체 썬

글로벌 인터내셔널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2만달러, 3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성사시키며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장개척단은 싱가포르 현지 전문 물류기업의 참고를 받으며 물류·유통 구조와 시장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물류비 지원, 해외 지사와 사업, 무역보험료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이 지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과일 곤약젤리, 미국 수출길 올라

나주 좋은영농조합법인 생산...2000여 매장서 판매

나주에 있는 '좋은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과일 곤약젤리가 미국 대표 유통체인 타겟(Target)에 입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일 곤약젤리는 사과·포도·복숭아·딸기 등 4종의 과일로 만든 것으로, 수출 초도 물량은 35만 달러 규모다.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 전역 2000여 매장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곤약젤리는 곤약을 원료로 한 젤리 형태의 간식으로 쫄쫄하고 탱글한 식감과 다양한 과일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저칼로리 식품으로 건강과 체중관리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해 최근 단순 간식을 넘어 '웰니스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가 지원한 2024년 뉴욕 맨시 푸드쇼 참가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현지인 로컬 유통망 진입로 이어졌다.

2006년 설립된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차츰 음료, 급식용 컵요, 스틱형 젤리 등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으로 HACCP,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22000), FDA 공장 인증을 비롯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유기가공식



나주 좋은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과일 곤약젤리 제품. 사진제공=전남도청

품, 스타팜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헬로아이' 시리즈 배·도라지 음료 등을 미국과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기선 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 타겟 입점은 곤약젤리가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며 "올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전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기능성 음료의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원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농수산물품이 한인 시장을 넘어 글로벌 주류 유통망에 진입한 대표 사례다"며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매칭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월간농협맛선' 3주년...고객 감사 이벤트

구독 할인·적립금 지급 등 혜택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구독서비스 '월간농협맛선'이 서비스 출시 3주년을 맞아 23일부터 5월 24일 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구독 고객과 신규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연중 최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3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고객이 첫 구독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고객에게는 구독 횟수에 따라 최대 2%의 적립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물잔치 게임'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5000원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참외, 오이소박이 등 인기 농식품을 대상으로 최대 67% 할인된 가격의 공동구매 프로모션도 병행해 소비자 체감 혜택을 한층 끌어올렸다.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월간농협맛선에 보내주시는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구독서비스만의 차별화된 혜택과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월간농협맛선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대, 새만금 대학시험포 사업자 선정

AI 활용 생육 모니터링·온실가스 저감 연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내 34.3ha 규모의 대학시험포를 운영할 대학으로 전남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대학에 무상 임대해 농업 분야 연구와 교육·훈련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35.9ha)와 한국농수산업(10.6ha)이 부지를 임차해 첨단 농업 교육과 간척지 토질 향상, 배수 불량 점검

(모니터링) 등 연구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성과 확대를 위해 신규 부지 34.3ha를 추가 확보하고 이달 초부터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정보 가립 평가(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사업 역량과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농생명용지에서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연구와 교육·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대(4.7ha)는 인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내 34.3ha 규모의 대학시험포를 운영할 대학으로 군산대, 원광대, 전남대를 최종 선정했다.

능 활용 생육 점검(모니터링)과 미생물성 등 온실가스 저감 연구 등 시험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산대(9.5ha)는 간척지 기반의 가능성 작물 연구와 현장형 농생명 교육·훈련을 운영한다. 원광대(20.1ha)는 토양개량과 한약재 간척지 적

응성 평가 등 약용작물의 재배 분석 및 실습을 진행한다.

공사는 이달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대학시험포 운영을 본격화한다. 공사는 농생명용지가 첨단 농생명 연구와 실증, 인재 양성이 함께 이뤄지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재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역량 있는 대학들의 참여로 새만금 이 미래 농업 기술을 선도할 연구·교육 기반을 얻게 됐다"며 "새만금 간척지가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